**삼하1524 Note**

**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**

◆다윗의 궤를 섬김 (제사장 아비아달)

삼상2220. 그리고 아비아달이라 이름하는, 아히둡의 아들인 아히멜렉의 아들 중의 하나가 벗어나, 다윗을 좇아 달아나니라,

삼상2309. 그리고 사울이 그를 거슬러 해악[라아:나쁜,악한,역경,고난,재난,불쾌,걱정,사악한(사람,일),해,무거운,상처,해로운,손해(를 끼치는),비참,슬픈,슬픔,쓰라린,고생,짜증나게 하다,사악한,잘못된]을 은밀히 실천하는 (하라쉬:긁다,새기다,쟁기질하다,공작하다,궁리하다,벙어리가 되다,감추다,꾀하다,상상하다,은밀히 실천하다,침묵을 지키다,잠잠하다,한 마디 말도 없다,혀를 물다) 것을 다윗이 아니라, 이에 그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니라, 에봇을 여기로 가져오라,

대상1637. 그렇게 매일의 일이 요구되는 대로, 궤 앞에서 지속적으로 섬기기 위해, 그가 여호와의 혈약궤 앞의 거기에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,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 육십 팔명과 함께 오벧에돔을 남겨두었으며,

대상1638. 또한 여두둔의 아들 오벧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남겨두니라,

◆다윗의 성막의 섬김 (제사장 사독)

대상1639. 그리고 기브온에 있는 높은 곳(바마:고지,높은 곳,높이,파도)의 여호와의 장막 앞에는, 아침과 저녁에 번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물들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하여, 또 여호와의 토라(토라:법칙,법령,특히 십계명,오경,율법)에 기록되어 있고,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것에 따라서 행하기 위하여,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들 제사장들을 남겨두니라,

대상2129.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여호와의 장막과, 번제단이 그 당시에 기브온에 있는 높은 곳(바마:고지,높은 곳,높이,파도)에 있었음이라,